

## 슬개골탈구에서 대퇴골에 대한 경골결절의 들출에 관한 고찰

이승진<sup>1</sup>, 박세일<sup>2</sup>, 김정은, 최우, 김지훈, 최장윤, 이상목, 장광호\*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sup>1</sup>울산 이승진동물병원, <sup>2</sup>대구 황금동물의료원

**서론:** 슬개골 탈구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발생되지만 어릴 때부터 내측 광근의 수축에 의해 슬개골이 내측으로 탈구되는 것이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소형견의 1,2등급 탈구에서는 이러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여러 관점에서 관찰하였다.

**재료 및 방법:** 극단적인 굴절과 신장이 이루어지는 사람에서 슬개골 탈구가 없는 점에 기초하여 슬관절을 촬영하여 본 결과 슬개골에 비해 슬개인대가 부착되는 경골결절이 후방에 위치하여 있었으며 이러한 관찰을 토대로 슬개골 탈구가 거의 없는 대형견인 허스키와 소형견인 스파니엘, 푸들과 시츄종 그리고 1.2등급의 슬개골 탈구가 있는 소형견인 요크셔 테리어와 말티스종을 비교 관찰하였다.

**결과:** 슬개골 탈구가 없는 허스키, 코커 스파니엘과 시츄종의 경골결절 경사각을 측정해본 결과 35°, 40°, 23°이었으며 슬개골 탈구가 있는 소형견종에서는 푸들이 40°, 60°이었으며, 요크셔 테리어는 60°, 52°와 50°로 나타났고 말티스는 40°로 경사각이 증가된 상태로 나타났다. 경골근위부의 만곡도도 슬개골 탈구가 있는 품종에서 증가되어 있었다.

경골 결절 위치는 활차구와 거의 동일한 위치에 있으며 말은 활차구 부위보다 훨씬 후방에 경골결절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대퇴골에 대한 경골의 회전은 사람에서는 거의 없고 고양이에서는 10°의 동일한 정도의 내외측 회전이 있었으며 대형견에서는 소형견보다 약한 정도의 내측 회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1.2등급 슬개골 탈구를 가진 소형견에서는 통상 30-45°로 회전각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임상적 의의:** 소형견에서는 경골결절의 경사각이 커 슬개인대에 의해 경골결절에 연결된 슬개골의 불안정성이 증가된 상태에서 극단적인 경골의 내측 회전 때문에 내측으로의 슬개골 탈구가 다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Corresponding author: khojang@knu.ac.kr